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포어 ☉

교회, 세상의 소망(빌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다음 주일은 우리 교유의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이다.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다함께
- 성시 시편 100:1-5 인도자
- 찬송 460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고후 9:6-15 인도자
- 메시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인도자
- 찬송 312 다함께
- 주기도 다함께

〈본문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6-15)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후서 9:6-15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돌아보며 우리가족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곧 베푸신 모든 선물로 인해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선물을 주신 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신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진 바와 누리는 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형언할 길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같이 우리에게 후사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으며 지체로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율법을 따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니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만 가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영광스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독생

자를 주심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주님의 신비를 표현할 길 없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과 구유에 오신 겸손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유의 대주재이신 분이 자기 땅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실자에게 못박히사 자유와 소망의 길을 여셨으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크심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심으로 확증된 그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우리의 감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후히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베푸신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를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3.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사에 감사하는 말과 찬송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셋째, 섬김으로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되신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입술과 마음과 생활 속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 실시키로

헌당감사 14대 행사 일환 9월25일(주) 오전 10시 102호실에서

서울교회 헌당감사 14대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9월25일(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2호 미스바홀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혹은 질병 등 사고와 재난이 빈번한 현대생활 가운데 응급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혈액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울교회는 이번 헌당의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로 이웃을 섬기기로 하고 사랑의 헌혈에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도 중 만성질환이나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을 보유하신 분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으며 헌혈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원증)을 지참하여 참석해야 한다.

헌당감사 연합찬양대 칸타타 연습일정확정되다

- 가브리엘 찬양대 :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 12시30분
- 할렐루야 찬양대 : 주일 오후 2시
- 임마누엘 찬양대 : 주일 12시30분

오는 11월25일(금) 밤7시에 열리는 헌당감사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을 준비하기 위한 각 찬양대별 일정이 잡혔다.

찬양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에 따르면 가브리엘 찬양대는 토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그리고 주일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502호),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503호), 임마누엘 찬양대는 주일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501호) 연습을 갖는다.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에 소속되

지 않은 타 찬양대원(시온, 호산나, 아멘관현악단, 그레이스핸드벨)과 타부서 봉사자중 찬양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의 참석도 환영한다. 타 찬양대원과 타부서 봉사자들은 본인의 시간을 조정하여 3개 찬양대의 연습시간에 참석하여 함께 찬양 연습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성탄축하찬양으로 헨델의 메시아(1부-예언과 탄생부분)를 준비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도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열린바자 마무리

-미 뉴올리언스 재난 등 국내외 구제키로-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 열린바자 가 지난 9일(금)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하였다. 우리교회 당회는 이번 바자 총수입금 중 십일조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구호를 위해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장애인 기관 두 곳과 교회 내 가족을

돕는 일에 사용키로 하였다. 또한 11월27일에 파송할 4분 선교사들의 정착금에 보태게 될 것이고 헌당을 위해 드려진다.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서울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자.

군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교회 당회는 군선교사역의 효과적 열매를 위해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대교회를 시무할 군선교사를 파송키로 하였다. 일천 개 이상의 군인교회를 위해 350명의 군목으로는 연대급 참모를 채우기도 부족하여 실제로 목사가 필요한 대대급 교회는 방치된 상태에 있다.

특히 이종윤 목사는 우리나라 군종역사상 최초

의 대대교회(3사단 18연대 3대대)를 설립한 바 있어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한국교회 군선교에 새로운 시도를 제시키로 했다.

파송될 선교사는 이경현 목사(1957년생)로 한국외국어대(B.A),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하고 육군 5사단 35연대 1.2대를 맡는다.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계속 접수중

다음 주까지 접수계속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강되어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열린프로그램은 다음 주까지 접수를 계속한다.

성도와 이웃이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며 여가 선용의 기회가 되는 열린프로그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복지법인 설립한다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운 서울교회는 구제사역을 효과적이고 객관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법인을 설립키로 하였다.

그레이스 핸드벨 지휘자 바뀐다

주일 2부 예배 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레이스핸드벨 콰이어를 지휘하던 송소영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이해경 선생(1957년생)이 부임한다. 이 선생은 서울예고, 중앙신학교 종교음악과에서 수학하고 국제 핸드벨 지휘자 세미나를 7회 수료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핸드벨 지휘 경력을 다년간 쌓은 분이다.

금주의 성구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행3:6-8)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Acts 3:6-8 [NIV])

2005년 열린바자 헌장집회

아~기쁜 날

서울교회를 축복하듯 하늘은 높고 푸르며 그 나라를 향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수요1부 예배 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별사의 감사하라는 목사님 말씀으로 바자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맛과 멋과 향이 어우러져 최상의 장터로 오색 테이프가 커팅 되고 문을 열자 이웃주민으로 가득 찬 서울교회는 어느새 이웃 사랑의 잔치 한마당이 되었다

이때를 위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티공원의 아름다운 정원, 그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교회 열린 바자의 하나님 사랑·이웃사랑의 아름다운 화합의 장으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아스포라부의 평양 원조 왕만두, 국민음식 자장면 맛 인기최고, 못 먹으면 울고 가는 도토리묵, 아줌마 순대, 바삭바삭 튀김, 온 동네를 냄새로 뒤집는 닭 꼬치, 8층 맛나 홀의 영양만점 뜨끈한 육개장, 얼음 버석거리는 시원한 냉면, 구수한 콩국수 등으로 우리의 미각을 돋구는 먹거리 장터와, 대형매장을 방불케 하는 LG전자매장, 액세서리, 온 장안에 소문난 스포리스 운동화 운동복, 색깔도 고운 햇고춧가루, 바다를 끌고 온 듯 싱싱한 조기, 비타민 알로에 화장지, 화장품, 몸에 좋은 오가피, 중고차 시장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이웃사랑과 선교와 헌당으로 부푼 가슴 마음껏 꿈꾸는 잔치 잔치 벌린 날이다.

보는 서울교회 우리는 행복 자~~~

어느새 오후6시가 되니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던 손길들이 서둘러 정리하며 2부 예배 준비로 서운 찬양대원들의 연습하는 모습은 또 하나의 교회모범과 군사로 훈련된 서울교회의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리로 가슴 뭉클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4교구의 과일코너에서는 배를 따서 과일 상자에 담기까지 교구식구들이 과수원에 가서 직접 그 과정을 일일이 온종일 야기 다루듯 정성껏 다루었다고 한다.

어느 여 집사님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다고 배를 따면서 인생을 배운 것 같으며 상품으로 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배 상자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고~~~

각 교구마다 특색이 있지만 13교구 전어물 코너에는 윤영국 목사님이 직접 판매원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라며 웃음소리가 온 교회를 번져 이웃까지 환하게 메아리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어둠이 깔리며 열린 바자의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종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인이 외서 물으면 여기 있노라고 선뜻 내놓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승리의 서울교회!

그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수고의 땀과 정성은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하늘 저울의 무게로 다실 것이리라. 2005열린 바자의 문을 닫으며 이웃사랑과

선교와 헌당의 기쁨으로 14살 가을의 행복한 꿈을 꾸어 보자!
취재: 신동기
사진: 오주명
(편집부)



14년 전 논현동 하늘 한 조각 띄어놓고 눈물로 예배 드리던 우리가 이제는 대치동 한가운데서 십자가 높이 들고 복음의 센터로 명실 공히 자리매김한 서울교회!

우리는 행복 자!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하늘 아버지께 가슴과 가슴으로 크게 외쳐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필사 중인 박한샘군

박한샘 (사랑부)

저는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척추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가정 형편상 치료비의 부담과 재활병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8살에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주몽재활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교회에서 전도를 나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믿음이 커져 갔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일반 고등학생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라는 사랑부의 교육방침에 따라 고등부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들과 나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친구들로 인해 저는 금방 고등부에 적응하며 이제는 제법 여러 명의 친구도 생겼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친구들의 열렬한 공부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특수학교라 경쟁자도 없고, 지체장애·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이 많은 주몽재활원은 한 쪽으로만 치우쳐 교육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굳게 믿고 전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가졌었는데, 얼마 후 임상심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애우들은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마음의 병이고 이런 마음의 병이 얼마나 장애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는 나이에 저는 임상심리사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짐으로써 편안함을 주어 즐거운 삶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되고자 이번 수시에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지원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대신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꿈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다시 한 번 임상심리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임상심리사보다 먼저 사회복지사 공부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지금까지 공부 하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특히 사랑부와 고등부 선생님들의 사랑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추석 특집 기획 - ①

기독교인과 제사

연재순서

- ① 기독교인과 제사
- ② 기독교인과 효



김재민 목사 (협동목사)

매년 추석이 가까우면 기독교인들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오랜 만에 형제 친척들과 못 나눈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한 부모의 자녀이니 조상님들을 추모追慕(=죽은 사람을 그리워 함)하는 뜻에서, 죽은 부모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묘지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또 구약성경에 제사지낼 때는 어떠한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천주교에서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락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이 '죽은 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왜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비기독교적인지를 이해하면 답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

르침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은, 곧 죄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결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며, 죄인에 대한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 곧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은 모두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마 8:21)"라고 청하였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마 8:22)"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시대전, 신약시대전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지,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넘어서, '죽은 부모를 귀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드릴 때 쓰는 '지방紙榜'에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附君神位'라고 씁니다. '신위神位'란, '평소 가까이 모시던 아버지가 고인이 되어 '신神', 곧 귀신의 '위位'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축문'에도 '謹以 清酌庶羞 哀薦祥事 尚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향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문을 볼 때, 부모에 대한 제사는 죽은 부모를 '귀신'으로 받드는 우상숭배 행위가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롬 6:11)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롬 6:23)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전도회 전도 특강

9월 14일(수) 오후 1시 602호

에스더전도회는 9월 14일(수) 수요일예배 후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오후 1시 602호실에서 전도 특강을 갖는다. 강사로는 70인전도대 박이선 집사로 전도의

2005년 농어촌 100교회 자매교회(2)

- 교회명: 늘푸른교회
- 교역자: 김승학 목사
- 교인현황: 장년 15명, 청년 5명, 중 고아동 3명
- 기도제목:
 - 새가족 양육하여 일꾼되게
 - 교회 십자가 세우도록
 - 교회 간판 달수 있게
 - 예배당 부지확보위해
- 교회주소: 대구시 만촌3동 871-19
- 후원자: 바울남선교회, 김영빈 · 배병이, 김금춘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3일(화) 장신대 체플에서 설교한다. 14일(수)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한다.
- 개업: 문주현 집사, 민혜정 집사(12교구) (주)MDM 사무실 이전 및 일식퓨전부페 'Blue Coast' 개업 분당구 경자동 251-1 킨스타워 6층, 3층
- 주간 식당 봉사: 한나전도회(9월11일) 당회원(9월18일)
- 금주의 식사: 정영옥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실차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e-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망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태신자 인도복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4. 대한민국의 경제성 회복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